

코로나 위축 소상공인 위해 팔 걸었다

골목상권 컨설팅 등 행사 다채 소비활동 장려·격려 메시지도 월곡시장 22일까지 쿠폰 증정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응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골목상권 컨설팅과 챌린지, 쿠폰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골목상권 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한가위로 골목상권'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한가위로 골목상권' 챌린지는 '한 손가락 더해서 골목상권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권역별 골목상권을 방문해 점심을 먹거나 커피숍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공직자 1,000여명부터 출신 수범까지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골목상권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소상공인 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에 나

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상담 기회가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고용·노동·경영·수출·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기업주치의들이 상가 개별 방문 형식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사업 ▲특례보증 정책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공제가 입 등 홍보도 병행한다.

분야별 현장 맞춤 컨설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062-941-953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곡시장에서는 우리 농축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광산구에선 월곡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는 22일까지 월곡시장 지정 점포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광산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와 함께 현장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광산구 제공

아재, 축산물, 건어물, 양곡 등 국내산 판매 여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점포가 참여하며 현장 배너를 통해 참여 점포를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월곡시장은 최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정재영)과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시장명물'에 입점, 드립백커피, 씨앗강정, 오란다, 건어물, 떡 등

품을 확인 후 즉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산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월곡시장은 최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정재영)과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시장명물'에 입점, 드립백커피, 씨앗강정, 오란다, 건어물, 떡 등

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다.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매출이 전월 대비 25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미경 월곡시장 상인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온라인 판로 개척과 이번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를 통해 시장이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며 "추석 상차림장 보기를 위해 월곡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지투리 소식

KT&G와 18일부터 걷기 행사

광주 광산구는 시민 면역력을 기르는 걷기 운동 행사를 협력기업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기업연계 행사로 KT&G 광주 전남본부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에 많이 먹은 확진자 함께 걸어요' 행사를 연다.

하루 1만 걸음 한정으로 10만 걸음을 먼저 달성한 시민 21명에게 5만원권 건강상품권을 각각 선물한다.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10만 걸음 달성자를 대상으로 동행 추천을 거쳐 건강상품권을 2만원 상당씩 증정한다.

걷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 '워크온'에서 걷기광산 모임에 가입하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윤영봉 기자

'백신 접종완료석' 안내판 지원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음식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테이블 안내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음식점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접종완료자 4명 포함 8인까지)된 것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것이다.

광산구가 제작한 안내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이란 문구와 함께 '광산구 안심콜'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마련됐다.

'쿠브(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앱,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확인한 뒤 테이블 안내판을 세워두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구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2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5,000여 개 업소에 안내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 행안부장관 표창

광주 광산구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중점과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6곳 등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부산 북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구 부분 우수 기관에 포함됐다. 광주 자치구 중에선 유일하다.

광산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등 제도 활용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표창 수여식은 29일 열린다.



광산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코로나 상생 지원금 주말 창구 운영

18·19일 21개 행정복지센터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주말인 18일과 19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는 추석 명절 전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명절을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말 신청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35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말 동안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시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해당자와 특례 기준이 적용된 맞벌이·1인 가구를 포함한 시민 35만8,000여 명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 중이며, 이후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윤영봉 기자

온라인스토어 '한다점빵' 오픈

30일까지 각종 이벤트 마련 3개월간 오프라인 매장 운영

광주 광산구 사회적경제 온라인스토어 '한다점빵'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문을 열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성장을 돕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개설을 추진해 왔다.

광산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이어받아 최근 오픈한 '한다점빵'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 비용 없이 온라인 주문 및 발송, 라이브커머스 등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광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20곳(사회적기업 8곳, 마을기업 8곳, 협동조합 2곳, 자활 2곳)이 입점, 더치커피, 빵, 수공예품, 화훼류 등 1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광산구는 앞서 60여 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기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시민의 착한 소비 동참을 위해 시너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도 벌이고 있다.

'한다점빵' 오픈 및 추석맞이 행사로 9월 한 달간 택배비 무료, 특별할인행사, SNS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온라인 판매 특성을 살려 오픈 초기에 검색광고, SNS홍보, 판촉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다점빵'은 네이버에 검색이나 링크(https://smartstore.naver.com/handcoop/)로 접속하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소셜캠퍼스온광주와 협업사업으로 광주송정역 지하철 역사에 9월부터 3개월간 '한다점빵' 오프라인 매장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봉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

